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JULY 2026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71



푸르른 자연과 역사의 숨결 속으로 골든클럽 6월 산행 및 역사 탐방을 다녀와서

푸르른 싱그러움이 가득한 6월을 맞아, 우리 골든클럽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미국의 역사를 돌아보는 뜻깊은 산행 및 역사 탐방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총 42명의 회원님이 동행하여 한 가족처럼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만, 포트리 인근의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인해 미리 신청하셨던 세 분의 회원님이 출발을 함께하지 못해 못내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는 이영범 부회장의 세련된 인도로 '미국 대통령과 역사'를 주제로 한 흥미진진한 퀴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문제를 풀며 팀 간의 단합을 다지는 것은 물론,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돌아보며 오늘날의 미국이 있기까지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이 뜨거운 열정으로 참여해 주신 가운데, 해박한 지식으로 맹활약

을 펼치신 배상규 회원님 덕분에 1팀이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첫 목적지인 미네와스카 주립공원에 도착한 후, 숲길을 따라 직접 걸어 올라가는 산행팀과 밴을 이용해 이동하는 팀으로 나누어 호수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호숫가에서 만난 두 팀은 청록색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호수와 푸른 숲을 배경으로 함께 산책을 즐기고, 아름다운 추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다소 무더운 날씨였지만, 고맙게도 호수 위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70대 청춘인 우리 회원님들의 땀방울을 기분 좋게 식혀주었습니다.

하산 길에 일부 회원님들이 방향을 잠시 착오하여 예정보다 일정이 30분가량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루즈벨트 생가 안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 [4면에서 계속]

GOLDEN CLUB NEWSLETTER

발행: 서울대 뉴욕지역 골든클럽 • 회장: 김정필 • 부회장 이영범, 금영천 • 김병순 (사무총장)
편집위원: 금영천, 김병순, 김정필, 여주영, 이영범, [상임고문]정해민, 홍충만, 윤현남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 jaypkim@keiusa.com • 201-965-7759

7/16

골든클럽 7월 골프대회

아래와 같이 7월 골프대회를 공지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위의 친지들의 동반도 환영합니다.

- 일시: 7월 2일 (목) 오전 11시
- 플러싱 버스 오전 8시: 한양마트 출발 Flushing
- 참가비 일인당 120불 (그린피, 디너 포함)
- 총진행: 김병순 사무총장

골든클럽 가입을 축하합니다.



이름: 전병삼 Byung Sam Chun
 대학: 약대 54
 전화: 914-703-0447
 email: byungsamchun3@gmail.com
 주소: 207-11 Melissa Ct, Bayside, NY11360



이름: 김득해
 Samuel D Kim
 대학: 문리 62
 전화:
 201 410 4889
 email:
 Samueldkim@hotmail.com
 주소:
 113 Thackeray rd.
 Oakland, NJ 07436

7/30

골든클럽 마스터클래스 4
미국독립전쟁

- 강사: 이길주 교수
- 일시: 7월 30일 11시-2시
- 장소: Bergen Community College
(강의실 추후 공지)
- 회비: \$30 (점심포함)

지난 4월에 이길주 교수님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강의에 이어, 7월4일 독립기념일에 즈음하여 미국 독립전쟁의 과정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하여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우리는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전쟁과 변화를 늘 겪고 있는데, 그 출발선상에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고 그 배경과 영향을 함께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9/27 가을 여행:
캐나다 단풍 투어

골든클럽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우리 골든클럽도 세월과 함께 연륜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 층에 섞여 서두르는 여행보다는, 우리에게 맞는 안전하고 여유로운 여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여행사 패키지 대신 우리만의 전용 버스를 대절하여 우리 페이스에 맞춰 이동하고 식사하는 '맞춤형 여행'을 준비합니다. 이번 캐나다 단풍 여행의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정례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다.

가을의 정점인 9월 말, 캐나다 동부의 화려한 단풍을 만끽하며 회원 간의 우의를 다지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여행 개요

일정: 9월 말 (7박 8일 예정)
 지역: 토론토-오타와-몬트리올-퀘벡
 방식: 전용 버스 대절 (우리만의 여유로운 일정과 편안한 식사)
 주요 내용: 단풍 명소 투어, 지역별 별미 시식 및 화합의 시간

■ 참가 신청 안내

현재까지 참가 신청하신 분은 27명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자리가 약간 남아있으니 혹 관심이 있으신 분 연락 바랍니다.
 권영국/오선숙 계동휘/계경애 김동건/김중수 민준기/유재원 송학린 오영호/오경희 윤선구 윤종숙 이강홍/나신정 이용대/이영순 임도혁/송진희 정준영/정예조달훈/조승자 최한용/문선 홍종만/홍예경

■ 의견 수렴

일정이나 식사 등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안해 주십시오. 적극 반영하여 최고의 여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고(故) 권태전 선배님 추모 오찬]

지난 겨울, 95세를 일기로 플로리다 따님댁에서 별세하신 고(故) 권태전 선배님의 추모 오찬이 세 따님의 초청으로 6월 25일 오후 2시 플러싱 Asian Jewels Restaurant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가족, 친지, 동문 등 40여 명이 모인 조촐하고 따뜻한 자리에 골든클럽에서는 김영덕, 우규환, 고애자, 홍종만/홍예경, 계동희/민경애 회원이 참석하였으며 생전 고인과의 두터운 정과 추억을 회고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고인의 영원한 명복을 함께 빌었습니다.



[송학린 회원 수채화 전시회 열려]

골든클럽 노익장 송학린 회원께서 내년 구순을 바라보는 연세에 불굴의 열정으로 '흥익 수채화 작가회' 창립 전시회에 출품하셨습니다. 6월 20일에 여러 회원들이 리셉션에 참가하여 축하하셨습니다.



[2026년 6월 뉴욕지역 동창회 총회 보고]

2026년 6월 27일 한우리에서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 2025-2026년 회기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다. 전체 8명이 모여서 순서에 따라 47대 회장단의 사업보고, 회계보고를 하고 48대 신임회장은 김병순 현회장을 1년 더 연임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였다.

이사장은 현재 우규환 동문이 연임을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다른 동문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는 회장의 설명이 있었다.

2026-2027년 사업계획 및 예산은 2025-2026년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에 준하여 하게 되며 기존 선배들과 90년대 이후 학번 동문들과의 Bridge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동문회의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둔다는 보고가 있었다.

2026년 6월 총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다

수입	연회비	300
	이사회비	800
	참가비	850
	후원금	400
	합계	2,350
지출	음식비	902



6월 4일 곽선섭/곽영희 부부와 홍종만/홍예경 부부가 이준행 명예회장님을 방문하고, 건강을 축하하였습니다.



골든클럽 하이킹 & 역사탐방 미네와스카 호수지역

우규환 (사대60)

미네와스카 호수를 한바퀴 돌면서 빙하가 만든 청록색 호수, 절벽과 숲으로 둘러싸인 경관을 구경한 후 뉴욕의 하이드 파크에 위치한 미국역사의 대조적인 인물 루즈벨트와 벤더빌트의 생애를 살펴보는 6/11 행사는 우리 모두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였다. 이영범 동문의 완벽한 계획과 진행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시간때문에 Awosting Falls, 벤더빌트 맨션은 가지못했지만 루즈벨트대통령의 생가와 박물관, 도서관을 둘러보면서 어머니 Sarah 여사와 부인 Elanor 두 여성이 아들과 남편 루즈벨트에게 끼친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합니다.

프랭클린 D.루즈벨트의 어머니사라여사는 강인하고 극성스러운 성격으로 아들의 성장과 정치 경력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Sarah Ann Delano는 부유한 명문 델러노 가문의 딸이며, 26세 연상의 대지주인 제임스 루즈벨트 1세와 결혼하여 외아들 프랭클린을 낳았습니다. 델러노 가문의 유산과 계급적 지위 덕분에 사라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사라는 루즈벨트를 공교육에 맡기지 않고 가정교사를 두고 수월성 특수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들이 엘리노어와 결혼을 계획했을 때 사라는 처음에는 결혼에 대한 반대를 나타냈으나, 결국 신혼부부 옆집에 거주하며 계속해서 가정과 자녀 양육에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리더십 형성과 정치적 성공에 핵심적인 기반이 되었으며,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 어머니

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무서운 사람은 어머니였다” 라고 루즈벨트는 말했습니다.

루즈벨트의 부인 엘리너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길게 재임한 영부인이자,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낸 선구자였습니다. 뉴딜 정책으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끈 남편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여성, 소수자, 그리고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스스로 역사의 중심에 섰습니다. 변호사시절 루즈벨트가 39세때 여름별장에서 찬물에 빠지는 사고로 인해 급성감염성 신경염으로 하반신마비로 절망에 허덕입니다. 패배주의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말했습니다:“장애가 있는 나를 아직도 사랑하오?” 엘리너의 대답입니다.“지금까지 당신 두다리를 사랑한것 같아요? 내가 사랑한것은 당신의 전부입니다.” 아내의 격려에 힘입어 루즈벨트는 5년의 재활기간을 마치고 목발을 짚고 다시 일어나 뉴욕주지사를 거쳐 백악관에 입성합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입니다. 철도회사 부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조카딸이었던 엘리너와 결혼한 말 그대로 금수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회 발전의 기준은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철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뉴딜 정책 등 약자의 편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펼쳤고,경제 대공황, 2



차 세계대전 등 초유의 위기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낸 루스벨트 대통령은 노변정답이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과 대화하며 소통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의 방송은 미국 국민들에게 희망이었던 겁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사석에서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는 일곱 번 넘어지고 다시 여덟 번 일어섰다"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사회적 약자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특유의 유머와 낙관주의로 국민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채워 준 대통령 루스벨트, 그는 쇼아마비라는 장애를 이겨낸 불굴의 인간승리자였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리더십과 인생을 뒷받침한 어머니 사라와 부인 엘라노의 사랑과 헌신을 보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성경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이번 산행과 역사탐방을 흥종만 전회장이 YouTube로 잘 담아서 회원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옆의 QR code를 누르시면 생생한 방문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0M4AvH7OY>

[1면에서 계속]

덕분에 이후 관람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생가에 도착해 조금은 서둘러 점심 식사를 마친 뒤, 루즈벨트 대통령이 태어나고 집무했던 역사적인 생가를 경건한 마음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이어 대통령 도서관과 박물관으로 이동하여 그의 위대한 업적을 본격적으로 마주했습니다. 특히 1929년 대공황 당시의 처참했던 사회상을 담은 영상을 보며 큰 실감을 느꼈습니다.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실직자들에게 국립공원 개발 등의 일자리를 제공(뉴딜 정책)하여 미국의 난국을 극복하고,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한 대통령의 탁월한 영도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때 시작된 '소셜 시큐리티(사회보장제도)'가 오늘날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얼마나 큰 혜택과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지 새삼 감사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방문객 센터(헨리 A. 윌리스 오디오 리움)에서 상영하는 오리엔테이션 영화 '역사와의 만남 (Rendezvous with History)'을 직접 관람하지는 못했지만, 뉴딜 정책과 제2차 세계대전 등 긴박했던 FDR 재임 시절의 기록들과 손자녀들이 회고하는 인간 루즈벨트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니, 다음 기회에 방문하시는 분들께 좋은 추천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골든 클럽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다음 모임에서도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회원 탐방] 황해도에서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까지, 인술(仁術)로 채운 삶 — 윤선구(치대 60) 동문을 만나다

7월호 회원 탐방의 주인공은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며 미국 뉴욕·뉴저지에서 성공적인 치과의사로 자리를 잡고, 은퇴 후에는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숭고한 봉사의 삶을 실천한 윤선구(치대 60) 동문이다. 그의 파란만장하면서도 따뜻한 인생 여정을 전한다.

1, 3, 5, 7, 9! 황해도 막내 복덩이가 걸어온 길

내 이름의 끝자리는 ‘구(九)’다. 흠수를 좋아하셨던 아버님 덕분에 우리 5형제는 선일, 선삼, 선오, 선철을 거쳐 내가 막내 ‘선구’로 태어났다. 아버님은 1918년 경신고보 시절 3·1 운동에 투옥되어 7년형을 선고받으셨던 독립운동가셨다. 복역 중 부상으로 2년 만에 병보석으로 출소하신 후 황해도에서 치수(治水) 사업을 일으켜 집안을 일으키셨다.

그러나 해방 후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아버님은 늘 요시찰 인물로 감시를 받으셨다. 어린 시절, 매 끼니마다 경찰서에 계신 아버님께 도시락을 나르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후 6·25 전쟁이 터졌고, 1·4 후퇴 때 고대 영문과에 다니던 큰 형님이 미군 통역으로 일한 덕분에 극적으로 미군 트럭을 얻어 타고 부산으로 피난을 떠날 수 있었다. 부산에서 초등학교 2학년을 맞이했지만, 전쟁통에 제대로 된 수업도 받지 못한 채 서울로 돌아오니 어느덧 5학년이 되어 있었다.

서울 길거리에서 우연히 황해도 고향 교회에서 장로로 계시던 아버님의 옛 직원을 만났는데, 그분이 마침 배재학당의 교무주임이셨다. 그 인연으로 얼떨결에 배재로 진학하며 학업을 이어가게 되었다.

"작은 삼촌은 치대를 가는 것이 좋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당시로서는 매우 선구적인 안목을 가졌던 형수님의 이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치과가 정확히 무얼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던 시절이었지만, 그 조언을 믿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이후 본과 2학년 때 친구의 여동생이자 간호대생이었던 평생의 동반자, 윤옥경 여사를 소개로 만났다. 군 복무를 마친 후, 우리 부부는 1971년 더 넓은 세상인 미국으로 향했다. (훗날 1980년 뉴욕에 온 홍종만 회장이 맨해튼에 치과가 몇 없을 때 내가 개업한 병원을 찾아왔던 기억도 난다.)

삼 대(三代)가 이어가는 치과의사의 길, 그리고 새로운 소명

우리 집안은 조금 특별하다. 나와 아내뿐만 아니라 아들, 며느리, 딸까지 모두 치과의사의 길을 걷고 있는 ‘치과 의사 명문가’다.



미국 이민 생활 속에서 1997년 펠리세이즈 교회 장로 임직을 받으며 신앙생활에 전념하던 중,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열망이 피어올랐다. *‘아직 내 몸에 힘이 남아있을 때, 소외된 이들을 위한 선교와 봉사에 삶을 바치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처음에는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한 달간 현지 답사를 다녀왔다. 현지인들은 치과의사가 온다는 소식에 열렬히 환호했지만, 가족과 함께 장기 체류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았다.

고민 끝에 미국 정부 기관에 인디언 보호구역 내 진료소 봉사 활동에 대해 문의 편지를 보냈다. 놀랍게도 단 4일 만에 초고속으로 답장과 안내 책자들이 날아왔고, 뉴멕시코주 나바호(Navajo) 인디언 구역의 병원에서 당장 와달라는 적극적인 요청이 왔다. 하루라도 빨리 오라는 독촉이 있었지만, 첫 손녀의 돌잔치만큼은 빼놓을 수 없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의 돌잔치를 무사히 치르고, 바로 그다음 날 우리 부부는 뉴멕시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척박한 사막에서 마주한 이들의 아픔

나바호 원주민들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애달팠다. 역사적 아픔 탓인지 전반적으로 무기력했고, 알코올 중독 문제와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방치된 이들이 많았다. 특히 평생 치과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데다 단 음료를 입에 달고 살아 구강 건강 상태는 처참할 정도였다.

보통 치과 진료는 체력 소모가 극심해 하루에 15~20명을 보기도 벅차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하루 기본 50명의 환자를 돌봐야 했

다. 그야말로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나날이었지만, 그만큼 우리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기에 멈출 수 없었다.

진료소에서 차로 한두 시간을 더 이동해 찾아가는 순회 진료 지역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유달리 치아를 뽑아야 하는 환자가 많았는데, 다행히 그곳 병원에 뉴욕에서는 보지 못했던 독일제 특수 치과 기구가 있었다. 입속에 넣고 치아를 잡기만 하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서서히 빠져나오는 신기한 기구 덕분에 수많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었다.

새벽 2시의 이발 투어와 압력밥솥의 기적

척박한 오지였던 만큼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훈장처럼 따라붙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발'이었다. 집에서 큰 가위로 서로 머리를 깎아보기도 했지만, 남자 머리는 조금만 서툴러도 티가 나 엉망이 되기 일쑤였다.

그러다 뉴멕시코의 수도 알부커키에 한국인 여성 미용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오직 이발을 하기 위해 새벽 2시에 출발해 6시간 동안 황량한 사막 도로를 달렸다. 겨우 도착해 머리를 깎고,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를 나누어 먹은 뒤 다시 먼 길을 돌아오던 그 시절의 기억은 지금도 우리 부부를 미소 짓게 만드는 소중한 추억이다.

해발 8,000피트(약 2,400m)의 고산 지대라 기후도 독특했다. 아침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뜨거웠지만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했다. 자연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기 보다는 밖에서 말 타며 노는 것을 더 좋아했다.

실제로 그곳 원주민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미국 내 어떤 대학이든 소수민족 전형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진학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지만, 고등학교 졸업 학력평가 시험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도전이었다.

오지 생활의 또 다른 복병은 '밥맛'이었다. 고산 지대 특성상 뉴저지에서 가져간 일반 밥솥으로는 밥이 설익어 고생했다. 이 소식을 들은 뉴저지의 옛 교우가 사랑이 담긴 압력밥솥을 보내주었고, 덕분에 다시 윤기 흐르는 하얀 쌀밥을 먹을 수 있었다. 가끔은 과거 한국 의정부에서 미군으로 근무했던 원주민 노병들이 찾아오곤 했다. 그들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반가워하며, 별다른 반찬도 없는 한국식 밥을 맛있게 먹으며 옛 한국에 대한 추억담을 늘어놓기도 했다.

5년간의 동행, 그리고 아름다운 새 출발

내가 진료에 매진하는 동안, 아내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내는 현지 의사 부인과 마음을 모아 원주민 어린 소녀들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작은 기관을 설립했다. 그 지역 문화적 관습 탓에 12~13세라는 너무 어린 나이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고통받는 소녀들이 많았기에, 아내의 손길은 그들에게 거대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나바호에서 그렇게 치열하고도 행복했던 5년의 세월이 흐를 무렵, 뉴저지에 사는 딸이 쌍둥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아이들을 돌볼 손길이 급하다는 말에 우리 부부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나바호 생활을 정리한 후 뉴저지로 돌아왔다. 딸의 가족과 합쳐 대가족을 이루며 왁자지껄한 제2의 삶이 시작되었다.

시간은 흘러 이제 그 쌍둥이 손주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품 안의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나와 아내는 이제 대가족에서 다시 둘만의 삶으로 돌아와 소박한 새 출발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은 미국의 한 현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나바호 출신의 젊은 여성을 만났다. 타지로 공부하러 와 백인 남편과 결혼해 예쁘게 살아가고 있는 그녀를 볼 때면, 마치 머나먼 사막에 두고 온 친딸을 만난 것처럼 가슴이 뭉클해진다.

지금도 아내와 다음 여행지를 고민하다 보면, 아내는 슬며시 “여보, 우리 뉴멕시코에 한 번 더 다녀옵시다” 하고 말하곤 한다. 그 척박한 사막에 심었던 우리의 땀방울과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기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그 푸른 하늘의 나바호 영토를 향해 달리고 있다.

(정리: 뉴스레터 편집부)



회원 명단 (109명 / 2026-6-25)

강교숙	김문언	민준기	신두식	이승준	정도현	한민우
강에드	김병순	박기환	신진식	이 준	정수일	한용오
강영선	김상만	박상원	신응남	이대연	조달훈	한태진
계동휘	김승호	박준구	오순문	이대영	조승자	한용희
고애자	김영덕	박희병	오용호	이영범	정준영	허용웅
곽선섭	김영만	배상규	오인석	이용대	정해민	홍정표
권문웅	김우영	성기로	우규환	이위곤	조상근	홍종만
권정덕	김익성	손갑수	육재희	이전구	주상선	홍예경
홍선경	김정필	손경택	윤선구	이종대	주재양	
권영대	김창수	손대홍	윤상영	이종석	진봉일	
권태전	김충정	남종현	윤재욱	이준행	천병수	
금영천	김치갑	손옥화	윤종숙	이행순	최병우	
김광수	김태일	송근숙	윤현남	이홍빈	최준희	
김광현	김한중	송웅길	이강홍	임도혁	최한용	
김동건	김현중	송현자	이민제	임호순	문 선	
김득해	노승만	송학린	이상무	전문준	전병삼	
김문경	노용면	송혜순	이상원	이승준	정수일	
				이용대	정준영	
				이위곤	조달훈	

2026년 연회비 납부 명단 79명 / \$7,900 / 2026-6-25

강에드	김병순	박희병	오인석	이종대	조승자	(2027)
곽선섭	김영덕	배상규	우규환	이종석	조상근	윤종숙
권문웅	김영만	성기로	육재희	이행순	주상선	
권정덕	김익성	손경택	윤선구	이홍빈	진봉일	
홍선경	김정필	손대홍	윤종숙	임도혁	천병수	
계동휘	김충정	남종현	이강홍	임호순	최준희	
권영대	김태일	손갑수	이대연	윤상영	최한용	
금영천	김한중	송근숙	이상무	정해민	문 선	
김광현	김현중	송학린	이상원	전문준	한태진	
김동건	민준기	송혜순	이승준	전병삼	한용희	
김득해	박기환	신진식	이영범	정수일	홍종만	
김문경	박상원	오순문	이용대	정준영	홍예경	
김문언	박준구	오용호	이위곤	조달훈	홍정표	

2026년 후원금 기부 명단 (27명 / \$11,900 2026-6-25)

강에드 300	김영덕 100	오순문 200	전문준 500
계동휘 300	김영만 500	오용호 500	정해민 2400
금영천 300	김정필 300	우규환 200	최준희 300
권정덕 500	김한중 300	이강홍 500	최한용 500
김광현 300	성기로 400	이상원 200	홍종만 1000
김동건 100	손경택 900	이종대 200	
김문경 300	신진식 500	이행순 300	

2026년 입회비 납부 명단

김득해 전병삼

발전기금 기부명단 (2020~)

이준행 40,000

골든클럽 행사 2026

2월	12일(목)	Talk show (Hilton Garden Inn) 23명 참가
3월	7일 (토)	신년교례 (Double Tree Hotel) 75명 참가
4월	2일(목)	Masterclass 2강 이길주 교수
	23일(목)	골프대회 (Sunset Valley 27명참석)
5월	7일(목)	Masterclass 3강 AI 비서 만들기
	28일(목)	뉴욕동창회 춘계골프대회
6월	11일(목)	피크닉 (Minnewaska State Park)
7월	16일(목)	골프대회 Walkill
	30일(목)	Masterclass 미국 독립 전쟁
8월	12일수)	피크닉 (Alpine Pavillion)
	20일(목)	골프대회
9월	10일(목)	Masterclass -Financial Literacy
	24일(목)	골프대회
	9/27-10/4	Canada 여행
10월	15일(목)	단풍관광
	22일(목)	뉴욕동창회 장학기금 골프대회
11월	5일(목)	골프대회
12월	5일(토)	뉴욕동창회 송년회
1월		Florida 골프여행
3월	6일	2027 신년교례

7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강교숙 (간호73)	신두식 (의대58)
구달희 (상대56)	이용대 (약대63)
권정덕 (의대58)	이종대 (약대65)
김병순 (사회82)	이홍빈 (의대57)
김영만 (상대82)	정수일 (대학원)
김충정 (상대64)	주상선 (공대73)
김태일 (공대68)	천병수 (공대70)
송혜순 (사대62)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i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성명과 바뀐 내용만 적어주세요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성명(한글)	(영문)	생년월일	연회비 \$100
단과대	학과	입학연도	후원금(\$)
전화번호	이메일		입회비 \$200
주소			